

의예과, 전남대 384점·조선대 382점

수능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분석

영어교육과, 전남대 375점·조선대 345점

서울 경영·의과대 400점 만점 받아야 합격

전남대에 진학하려면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인문계열 수험생은 341점 이상, 자연계열은 313점 이상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상위권인 서울대 경영대와 의예과는 400점 만점을 받아야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 의예과는 384점, 조선대의예과는 382점으로 전망됐다.

이는 광주진학부장협의회(회장 송형래·국제고 진학부장)와 광주시교육청 진학지원단이 지난 4일 치른 광주지역 고교 3학년 수험생 1만4100여명의 2016 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400점 만점 기준)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산출한 배치자료에 따른 것이다.

6월 모의평가는 쉽게 출제돼 국어·영어·수학·탐구 전 영역에서 점수가 높아지면서 지원 가능 점수 또한 크게 올랐다.

광주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남대의 경우 문과 수험생은 영어교육과 375점, 국어교육과 373점, 경영학부 367점, 심리학과 364점이고, 이과 수험생은 의예과 384점, 치의학과 381점, 수의예과 363점, 수학교육과 356점, 간호학과 350점, 전기공학과 346점, 수학과 336점은 돼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대는 의예과 382점, 치의예과 380점, 영어교육과 345점, 국어교육과 341점, 간호학과 337점, 수학교육과 325점, 기계공학과 307점으로 인문계열은 283점 이상, 자연계열은 278점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지원하려면 378점은 돼야 하고, 광주교육대는 문과 37점, 이과 356점대로 형성됐다.

서울지역 주요 대학도 예상점수가 급했다.

서울대 경영대학과 의예과, 고려대의예과, 이화여대 의예과는 수능 전체 문제 중 하나만 틀려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대에 지원하려면 문과 수험생은 394점 이상, 이과는 378점 이상은 받아야 할 것으로 점쳐졌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400점 만점, 화학생물공학부 391점, 생명과학부 387점, 화학부 386점 등이고, 인문계열은 경영대 400점 만점, 사회과학계열 398점, 인문계열 397점, 역사교육과 395점이 커트라인이다.

연세대는 의예과와 치의예과 398점, 화공생명공학부 384점, 경영학과·경제학부 397점, 언론홍보영상학부·행정학과·정치외교학과 394점 이상으로 예상됐고, 고려대는 의과대학 400점 만점, 경영대 397점, 정경대학 396점, 미디어학부 394점, 사이버국방학과 382점, 사학과 391점 이상 등으로 자연계열보다 인문계열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서강대는 아트 앤 테크놀로지 392점, 커뮤니케이션학부 390점, 동아시아문화 388점이고, 성균관대는 의예과 397점, 글로벌경영학과 392점, 글로벌리더학과 391점으로 전망됐다.

송형래 광주진학부장협의회장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쉬운 수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국어 B형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고, 수학 B형은 전국 만점자 비율이 1%가 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다소 변별력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주요대학 6월 모의평가 가채점 배치표(원점수 400점 만점)

	문과		이과	
	모집단위	지원가능점수	모집단위	지원가능점수
전남대	영어교육과	375	의예과	384
	경영학부	367	치의학과	381
	영어영문학과	367	수의예과	363
	심리학과	364	수학교육과	356
	신문방송학과	362	산업공학과	329
	자율전공학부(1년)	357	바이오에너지공학과	326
조선대	영어교육과	345	의예과	382
	상담심리학과	333	치의예과	380
	경찰행정학과	332	간호학과	337
	신문방송학과	322	수학교육과	325
	경영학부	320	식품영양학과	313
	문예창작학과	306	전기공학과	310
광주교대	문과	374	이과	356
광주과기원				378

■ 서울 주요대학 6월 모의평가 가채점 배치표

대학	문과		이과	
	모집단위(군)	지원가능점수	모집단위(군)	지원가능점수
서울대	경영대학	400	의예과	400
	사회과학계열	398	화학생명공학부	391
	영어교육과	397	수리과학부	386
	농경제사회학부	397	물리천문학부	383
	소비자이동학부	394	간호대학	378
	경영학과	397	의예과	398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394	화공생명공학부	384
	자유전공	394	도시공학과	380
	국어국문학과	393	사회환경시스템 공학부	379
	철학과	389	실내건축학과	374
	경영대학	397	의과대학	400
	국제학부	393	사이버국방학과	382
고려대	국어교육과	391	전기전자공학부	380
	사회학과	390	컴퓨터학과	378
	한국사학과	389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374
	Art&Technology계	392	화공생명공학계	376
	경영학부	391	자연과학부	375
	커뮤니케이션학부	390	기계공학계	374
서강대	영미문화계	389	전자공학계	374
	국제한국학계	386	컴퓨터공학계	373
	글로벌경영학과	392	의예과	397
	글로벌리더학과	391	반도체시스템공학과	380
	인문과학계열	387	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학	378
	교육학과	386	자연과학계열	372
성균관대	한문교육과	385	공학계열	370

U대회와 겹치는데... 기말고사 어쩌나

광주 초중고 94.7% 7월 3~14일 시험...당국 골머리

오는 7월3일 개막하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가 일선 초·중·고등학교 기말고사 기간과 겹쳐 교육 당국이 학사 일정 조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광주지역 305개 초·중·고 가운데 광주U대회 기간인 7월3일부터 14일 사이에 학기말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가 289개교, 비율로는 94.7%에 이른다.

초등은 시험을 보지 않는 11개교를 뺀 139개교가 7월1일부터 15일 사이에 하루를 택해 시험을 치르고, 중학교는 90개교 중 88개교가 같은 시기에 쏠개는 사흘, 길게는 나흘간 기말시험을 실시한다. 고교도 67개교 중 64개교가 7월1~16일 사이에 3~4일간 지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U대회 개막 이전인 6월29일에서 7월3일 사이에 시험보는 학교는 중학교 2개교, 고교는 3개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세계 스포츠제전인 U대회의 흥행이나 관람열기에 메르스에 이어 기말고사까지 예기찮은 결림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학교는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시험기간을 조정하고 있다.

S고의 경우 당초 7월3, 6, 7, 9일로 잡혀 있던 기말고사 기간을 1~3일과 6일로 조정했고, G고는 3학년 전국모의연합평가와 1, 2학년 수험평가 일정을 고려해 당초 6~8일로 예정됐던 시험기간을 U대회가 끝난 후인 13~15일로 넉넉히 늦췄다.

S고 교장은 “학생들에게는 평생 한번 볼까말까한 국제행사여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험기간을 아예 통째로 앞당길까도 논의했지만 교과 진도와 시험 후 방학까지 취약시기가 겹쳐지는 점 등을 감안해 이틀만 앞당겼다”고 말했다.

G고 교감은 “U대회 전에 시험을 끝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학사일정이 워낙 타이트해 그럴바엔 아예 U대회 이후로 늦추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일정은 늦었지만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이 U대회 관람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일정을 변경하지 않는 학교도 적지 않다. 교과 진도를 맞추기 힘들 뿐더러 시험 후 방학까지 3주일이나 남게 돼 생활 지도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시험 후 채점과 성적관리, 방학 준비에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부적으로 나왔다.

한 중학교 관계자는 “시험을 1주일쯤 앞당겨 6월말로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교직원들이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당초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종재 광주시교육청 장학사는 “U대회 기간을 피해 시험일정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고 6월 중순이면 방학에 들어가는 대학과 달리 초·중·고는 7월 초·중순이 피크(가장 중요한 시기)여서 학교나 교육청 모두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장만채 1위·장휘국 2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두달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3위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차지했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JTBC-리얼리티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8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5월 직무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장만채 교육감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8%의 ‘잘한다’는 긍정 평가했다.

장 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2위를 기록했으며, 4월 지지도는 1위를 차지했다.

장 교육감은 그동안 전남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독서토론수업 활성화, 고교 교육력 제고, 무지개학교 확대 등 전남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52.3%의 긍정평가로 2위를 지켰다. 이석문 교육감은 51.0%의 긍정평가로 지난 10월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50%대에 진입하며 3위에 올랐다. /박정욱기자 jwpark@

김성진 영암마트 대표 빛고을결식학생재단 이사장 위촉

김성진 영암마트(Y-MART) 대표가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이사장에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은 공익법인으로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이 ‘결식학생제로화’를 위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일반 시민의 기부와 업체 영수증 적립기부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 결식학생을 후원하고 있다.

김 신임 이사장은 “학창시절 집안 형편

이 넉넉지 않아 밥을 못 먹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적어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 학생들에게 만큼은 그 기억을 다시 되새기는 일이 없도록 이사장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초등생 농부들의 기부

광주교대 부설초, 학교텃밭 농산물 성요셉의집 등에 전달하고 연주회



광주교대 부설 초등학교(교장 최영순) 학생들이 학교텃밭 농산물을 수확해 무료급식 단체에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부설초는 10일 2학년과 5학년 학생 48명과 학부모·교사 등이 학교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사회복지시설 ‘성요셉의집’과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고 작은 연주회 등 재능기부도 했다고 밝혔다.

또 2학년 학부모들은 쌀 40kg, 화장지, 간식 등을 함께 전달해 기부문화를 확산에 기여했다.

광주부설초는 학생들의 융합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학교텃밭에서 직접 기른 농산물을 기증함으로써 체험학습과 나눔·배려를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교육효과를 거뒀다.

한경서 학생은 “우리가 직접 가꾸고 수확한 농산물을 통해 필요한 어르신들

께 나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다”며 “꿈이 사회복지사인대 앞으로도 나눔과 배려의 생활을 실천하겠

다”고 말했다. 최영순 교장은 “자연에서 맘을 풀리고 흙을 일구는 학교텃밭 체험과 나눔

봉사를 통해 학생들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 상 준 원장
전문의, 전 동종대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 227-7575

KT ● 중영초교 ● 금남로

← 계림동 →

한화생명 ● 주한대 ● 교계 주차장

구.한미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동부소방서